

일본 경제 동향_2016년 9월

(일본의 새로운 금융완화 방식)

< 목 차 >

I. 일본 경제 지표	1
II. 최근 일본 경제동향 및 전망	2
1. 경기회복력 둔화	2
2. 무역수지 적자 전환	6
3. 엔고가속·주가회복·마이너스금리 축소	9
4. 해외직접투자 3개월 연속 증가	10
III. 일본의 주요 정책	12
1. 일본의 새로운 금융완화방식	12
IV. 한일 경제관계 분석	15
1. 대일 무역적자 3개월 연속 확대	15
2. 일본인 직접투자 큰 폭 증가	17
V. 참고 자료	19
1. 주요기관 연구보고서	19
2. 주요 경제 일정	21

I. 일본 경제 지표

구 분	2014	2015	2015			2016				
			2/4	3/4	4/4	1/4	2/4	6월	7월	8월
경기동향지수(일치지수, 2010=100)	-	-	-	-	-	-	-	112.1	112.8	-
GDP증가율(연율,%)	△0.0	0.5	△1.9	2.1	△1.7	2.1	0.7p)	-	-	-
국내투자 (조엔)	민간설비투자	69.5	70.1	16.3	17.9	17.2	20.1	15.8p)	-	-
	공공투자	24.5	23.4	4.1	5.0	6.1	6.5	4.3p)	-	-
해외직접투자(조엔)*	79.0	70.0	14.8	17.6	21.8	19.6	12.7	5.2	5.5	-
소비자물가	전기비	2.6	0.5	0.2	0.0	0.1	△0.2	△0.1	0.0	△0.2
상승률(%)	전년동기비	2.6	0.5	0.1	△0.1	0.0	△0.1	△0.4	△0.4	△0.5
실업률(%)		3.6	-3.4	3.3	3.4	3.2	3.2	3.2	3.1	3.0
수출(조엔)		73.1	75.6	18.8	19.0	18.8	17.5	17.0	6.0	5.7
수입(조엔)		85.9	78.5	19.1	20.0	19.0	17.2	15.5	5.3	5.2
무역수지(조엔)		△12.8	△2.9	△0.3	△1.0	△0.2	△0.3	1.5	0.7	0.5
경상수지(조엔)		3.9	16.4	3.8	5.0	3.6	5.9	4.6	1.0	1.9
환율	달러	105.8	121.1	121.4	122.3	121.5	115.3	108.1	105.5	103.9
	원화(100엔)	996	935	905	957	953	1,043	1,076	1,108	1,099
금리(10년물,%)		0.55	0.36	0.40	0.40	0.31	0.051	-0.121	-0.160	-0.256
주가(닛케이)		15,460	19,203	20,058	19,474	19,035	16,843	16,393	16,069	16,168

주: (p)는 2차 속보치 *실행액 기준, 자료: 일본 내각부, 재무성, 총무성, 후생노동성, 한국은행

☐ (경기판단) 경기회복력 둔화

- '16.7월 경기동향지수(2010년=100)는 112.8로 전월비 0.7p 상승

☐ (소비자물가) 소비자물가 2개월 연속 하락

- '16.7월 전월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2%

☐ (무역수지) 무역수지는 187억 엔 적자

- '16.8월 수출은 5조 3,164억 엔, 수입은 5조 3,351억 엔

☐ (환율) 엔고 가속

- '16.8월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 평균치는 101.3 엔으로 전월비 2.5% 엔고

* '16.8월 엔/원 환율 평균치는 100엔당 1,098엔으로 전월비 0.1%엔저·원고

II. 최근 일본 경제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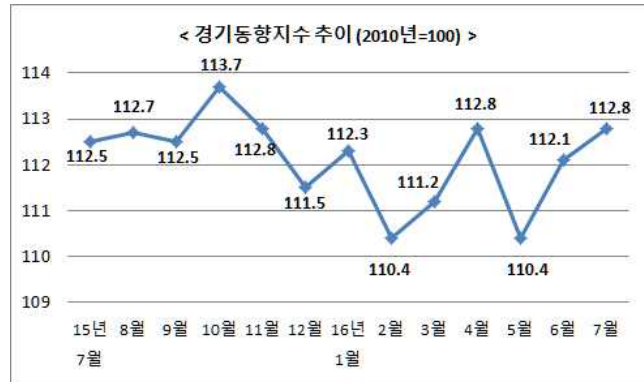
1. 경기회복력 둔화

□ (경기기조 판단)

○ 일본경제는 경기회복력이 둔화에서 상승국면으로 전환되는 변곡점에 와있음

- 고용과 소득은 견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개인소비는 저점을 통과하고 있으나 수출과 생산은 회복

○ 다만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7월 경기동향지수(일치지수, 2010년=100)는 112.8로 2개월 연속 상승



자료 : 내각부

- 일본 내각부는 경기기조판단을 1년 3개월 연속 답보상태로 유지

○ 전체적으로 회복력이 둔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격차도 이번 국면의 특징임

- 이제까지는 대기업에 비하여 중소기업의 회복력이 약했으나 이번 국면에서는 역전

□ (전 망)

○ 앞으로 일본경제는 엔고가 부담요인이기는 하나 공공투자의 진척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을 보일 것으로 전망

- 특히 지난 8월 2일 일본 각의에서 결정된 28조 엔 규모의 경제대책과 일본은행의 추가 금융완화가 실시됨에 따라 앞으로 완만한 회복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

○ 다만, 6월의 경기조사에 의하면, 브렉시트의 영향으로 가계와 기업의 마인드가 악화되어 설비투자자와 소비, 신규 고용 등이 일부 보류될 가능성은 있음

<GDP>

- 일본 내각부가 9월 8일 발표한 2016년 2분기 GDP 성장률 수정치(2차 속보치, 실질)는 전기비 0.2%, 연율 0.7%로 1차 속보치(전기비 0.048%, 연율 0.2%)로부터 상향조정
 - 민간설비투자의 증가 외에 화학품 등의 재고증가가 상향수정의 요인
- 그럼에도 세계경제의 침체와 엔고의 영향으로 인한 설비투자와 수출의 부진 및 소비의 역부족으로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음
- 수요항목별로 보면, 설비투자는 1차 속보치의 전기비 0.4% 감소에서 0.1% 감소로 마이너스 폭을 줄였음
 - 도·소매업과 전기, 건설업 등은 감소한 반면, 부동산과 철강은 증가
- 민간재고투자는 1차 속보치에서는 GDP를 0.03% 끌어올렸으나, 수정치에서는 0.1%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남
 - 자동차의 제품재고에 더하여 기초화학제품, 전기통신기기의 가공단계에서 기업들이 재고를 늘렸음
- GDP의 60%를 점하는 개인소비와 주택투자, 수출은 1차 속보치와 동일
- 일본정부는 금년 1월 1.7%로 전망했던 2016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을 0.9%로 하향 수정

< 일본의 실질GDP 성장률(%) >

구 분	2014	2015	2014		2015				2016	
			7-9월	10-12월	1-3월	4-6월	7-9월	10-12월	1-3월	4-6월
전기비			△0.6	0.6	1.2	△0.5	0.5	△0.4	0.5	0.2
전기비연율	△0.0	0.5	△2.4	2.2	5.0	△1.9	2.1	△1.7	2.1	0.7
전년동기비			△1.5	△1.0	△1.0	0.7	1.8	0.7	0.2	0.8

자료: 내각부, p)는 2차 속보치

<국내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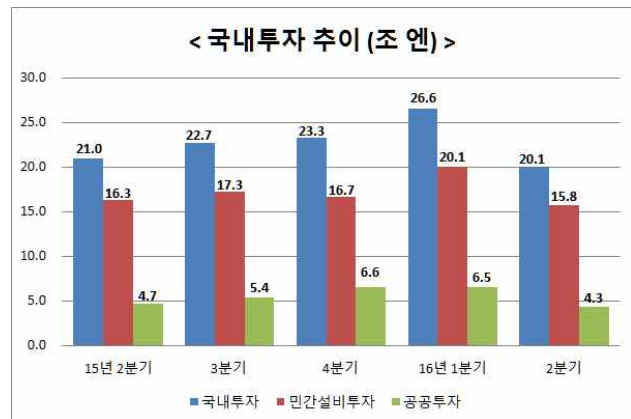
□ '16.2분기 국내투자 GDP의 16.1%

○ '16.2분기 국내투자(민간설비투자+ 공공투자:명목기준)규모는 전기비 24.4% 감소한 20.1조 엔으로 GDP의 16.1%

□ (민간설비투자)

○ '16.2분기 민간설비투자는 명목기준으로 전기비 21.6% 감소한 15.8조 엔, 국내 투자의 78.6%를 차지

○ 실질기준으로는 엔고와 세계경기 침체 영향으로 전기비 -0.1%, 2분기 연속 감소



자료 : 내각부

○ 일본은행의 단기경제관측조사(6월 조사)에 의하면 2016년도 설비투자계획은 전 산업에서 5년 연속 증가, 제조업에서는 6년 연속 증가, 비제조업에서는 5년 만에 감소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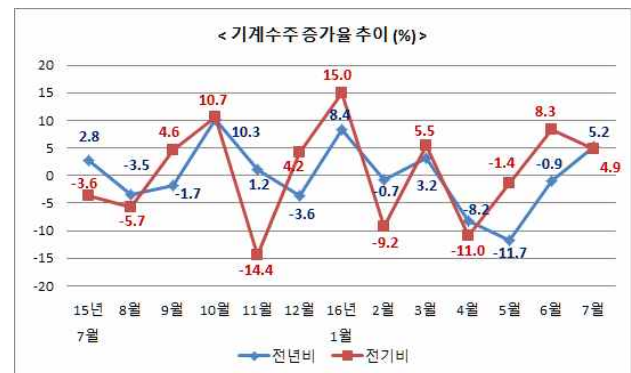
- 다만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6월 기계 수주는 2개월 연속 전월비 4.9% 증가

□ (공공투자)

○ '16.2분기 공공투자는 명목기준으로 전기비 33.5% 감소한 4.3조 엔으로 국내투자의 21.4%를 차지

○ 최근 공공투자는 견조세를 유지

- 6월의 공공공사 거래액은 전월비 0.6% 증가 자료 : 경산성, 내각부



○ 2016년 8월 2일 각의에서 결정된 28조엔 규모의 경제대책 등이 실시됨에 따라 앞으로 공공투자가 더욱 활기를 띠 전망

<소비자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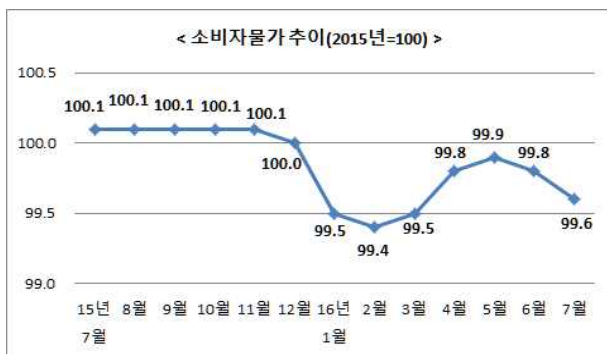
□ '16.7월 소비자물가 2개월 연속 하락

- '16.7월 소비자물가지수(생선·식품을 제외한 코어 CPI)는 99.6(2015년= 100)으로 2개월 연속 전월비 0.2% 하락
 - 전년동월비로는 에너지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0.5% 하락, 5개월 연속 하락
 - 그러나 에너지를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기비 0.5% 상승
-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완만한 상승이 예상되나 당분간은 보합권내에서 추이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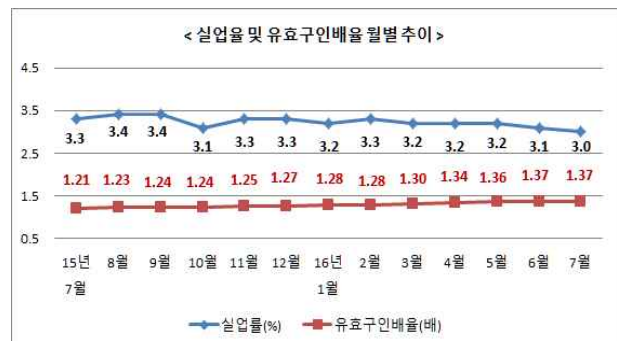
<실업률>

□ 실업률 최저치 갱신, 고용사정 개선 지속

- '16.7월 완전 실업률은 3.0%로 전월보다 0.1%p 하락
 - 이는 21년 2개월만의 최저 수준으로 일손부족을 배경으로 노동수급의 팽박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을 반영
 - 취업자 수는 전월보다 40만 명 증가, 고용자수도는 11만 명이 증가한 5,727만 명
- '16.7월 유효구인배율은 신규 구인 수의 증가와 함께 1.37배로 전월과 동일, 여전히 고용수요의 증가를 반영
 - 방일객의 증가를 배경으로 숙박·음식·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신규 구인 수가 증가
- 일본 정부는 계속 고용 사정이 개선되고 있고, 앞으로 고령화를 배경으로 수요가 높은 의료·복지 분야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자료 : 총무성



자료 : 후생노동성

2. 무역수지 적자 전환

□ (총 합) 수출 부진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 반전

- '16.8월 무역수지는 187억 엔 적자로 3개월 만에 흑자에서 적자로 반전
 - 엔고와 수출 부진이 흑자 감소에 기여
 - 최대 적자국인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는 전월의 2,660억 엔에서 3,432억 엔으로 확대된 한편, 최대 흑자국인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는 전월의 5,940억 엔에서 3,623억 엔으로 크게 축소

< 2016년 8월 일본의 수출입 (조엔, %) >

	2016.7월			2016.8월			2016.1-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수 출	5.7	-14.0	-5.0	5.3	-9.6	-7.2	45.5	-9.5
수 입	5.2	-24.7	-1.9	5.3	-17.3	2.3	43.2	-18.3
수 지	0.5	-	-25.9	-0.02	-96.7	-	2.28	-

자료 : 재무성

□ (수 출) '16.8월 수출, 금액·물량 모두 감소

- '16.8월 수출은 엔고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7.2% 감소한 5조 3,164억 엔
 - 수출물량도 전월대비 8.5% 감소
- 5대 수출품목은 전월과 비교하여 원동기 대신에 플라스틱이 포함된 가운데 모든 품목의 수출이 감소
 - 자동차의 수출 감소폭이 -19.4%로 가장 큼

< 2016년 8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출 (억 엔, %) >

순위	품목	2016.7월			2016.8월			2016.1-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1	자동차	9,650	-11.5	-3.0	7,774	-9.4	-19.4	71,908	-5.3
2	반도체등 전자부품	3,035	-11.4	2.6	2,970	-12.4	-2.1	23,512	-10.0
3	자동차부품	2,878	-9.2	0.5	2,594	0.1	-9.9	21,807	-4.7
4	철강	2,438	-21.7	5.0	2,332	-20.4	-4.3	18,942	-26.0
5	플라스틱	1,903	-10.9	0.5	1,793	-9.8	-5.8	14,746	-10.2

자료 : 재무성

○ 주요 지역·국가에 대한 수출은 한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감소

- 미국에 대한 수출 감소폭이 -17.9%로 가장 큼
- 對 한국 수출은 전월비 0.5% 증가

< 2016년 8월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수출 (억 엔, %) >

순위	국가	2016.7월			2016.8월			2016.1-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1	미국	11,825	-11.8	-2.9	9,714	-14.5	-17.9	91,972	-8.1
2	중국	10,299	-12.7	-1.3	9,689	-8.9	-6.0	78,895	-9.5
3	ASEAN	8,510	-13.7	-4.4	8,119	-10.5	-4.6	67,644	-2.8
4	EU	6,655	-6.5	0.4	5,908	-0.7	-11.2	53,001	2.0
5	한국	4,090	-9.2	2.5	4,111	-1.8	0.5	32,373	-11.1
6	대만	3,587	-11.6	-3.1	3,526	-4.5	-1.7	27,510	-8.3

자료 : 일본 재무성

□ (수 입) '16.8월 수입도 금액·물량 모두 증가

- '16.8월 수입도 엔고의 영향으로 둔화, 전월비 2.3% 증가한 5조 3,351억 엔
- 수입물량도 전월비 2.4% 증가

- 전월과 비교하여 의류 및 동부속품과 액화천연가스가 수입순위 2위 및 3위로 올라섬
- 수입증가품목 중에서는 의류 및 동부속품의 수입증가폭이 34.9%로 전월에 이어 가장 큼
- 수입 감소품목 중에서는 원유의 수입 감소폭이 -2.8%로 가장 큼

< 2016년 8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입 (억 엔, %) >

순위	품목	2016.7월			2016.8월			2016.1-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1	원유	5,054	-42.6	8.9	4,912	-35.7	-2.8	35,848	-28.9
2	의류 및 동부속품	2,336	-17.9	16.8	3,151	-9.1	34.9	20,875	-3.8
3	액화천연가스	2,249	-43.2	9.5	2,713	-34.6	20.6	21,678	-44.8
4	의약품	2,373	-11.3	-0.3	2,399	-16.7	1.1	18,591	1.1
5	반도체 등 전자부품	2,040	-23.0	-1.7	2,021	-13.3	-1.0	16,602	-16.7

자료 : 일본 재무성

- 주요 지역·국가로 부터의 수입은 한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증가
-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월비 1.6% 감소

< 2016년 8월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수입 (억 엔, %) >

순위	국가	2016.7월			2016.8월			2016.1-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1	중국	12,959	-21.7	-6.0	13,121	-15.4	1.3	97,861	-22.6
2	ASEAN	7,724	-25.8	-6.3	8,345	-10.7	8.0	58,884	-26.5
3	EU	6,667	-15.7	2.5	6,733	-12.4	1.0	47,096	-16.0
4	미국	5,885	-15.2	-1.9	6,091	-9.5	3.5	42,404	-23.0
5	호주	2,590	-28.3	16.4	2,593	-25.6	0.1	18,088	-38.0
6	한국	2,197	-20.5	-2.7	2,161	-13.7	-1.6	15,431	-30.2

자료 : 일본 재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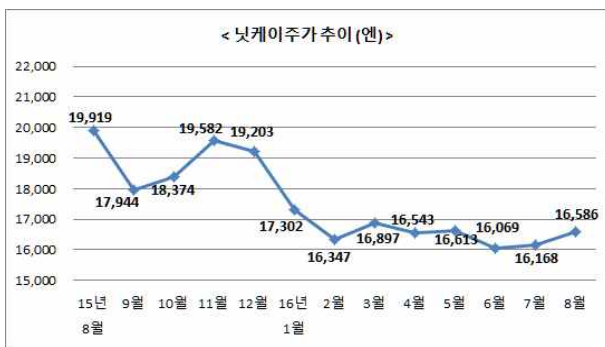
3. 엔고가속 · 주가회복 · 마이너스금리 축소

□ (주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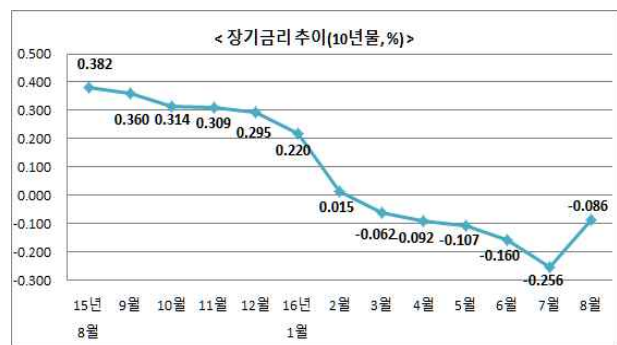
- '16.8월 평균 주가는 전월비 2.6% 상승한 16,586엔

□ (금 리)

- '16.8월 평균 10년 장기국채 금리는 전월의 -0.256%에서 -0.086%로 마이너스 폭이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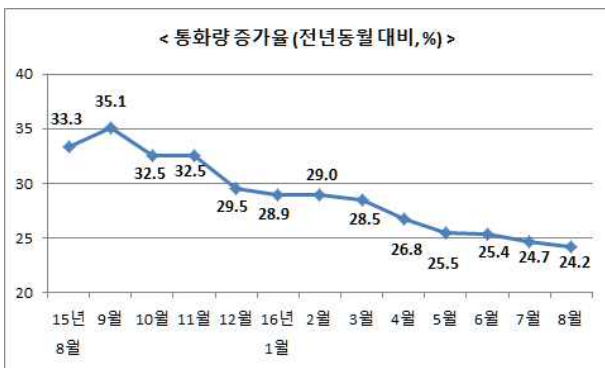
자료 : 일본경제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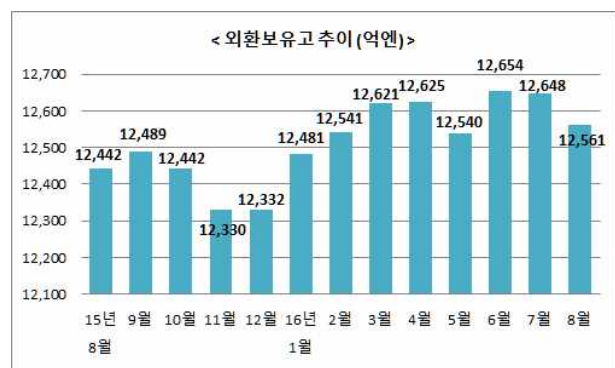
자료 : 일본상호증권

□ (통화량)

- '16.8월 본원통화(머니리베이스 기준), 통화량증가율은 일본은행의 자산매입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년 동월 대비 2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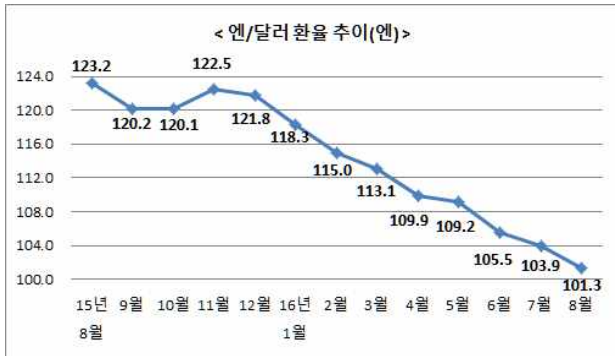
자료 : 일본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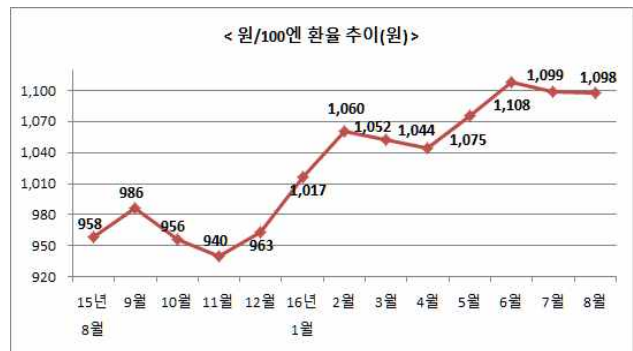
자료 : 재무성

□ (환 율)

- ‘16.8월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평균치는 전월비 2.5% 하락한 101.3엔(엔고)
- ‘16.9월 들어서도 엔고가 진행, 9월 21일 기준 101.8엔
-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론 후퇴 및 미일간 장기금리차 축소, 영국의 EU탈퇴 결정 등이 엔고 환경을 조성
- ‘16.8월 엔화의 대 원화 환율 평균치는 100엔당 1,098원으로 전월의 1,099원에 비하여 0.1% 엔저·원고



자료 : 일본은행



자료 : 한국은행

4. 해외직접투자 3개월 연속 증가

□ (동 향) 중남미 지역에 대한 투자급증이 전체 해외직접투자를 증가를 주도

- ‘16년 7월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액은 54,862억 엔으로 전월비 5.8% 증가

<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국제수지 기준, 억 엔, %) >

		2015	2015			2016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6월	7월	1-7월
금 액		696,396	147,919	176,072	217,554	196,248	127,675	51,853	54,862	378,785
증가율	전기비	-11.8	-4.5	19.0	23.6	-9.8	-35.0	33.4	5.8	-
	전년동기비	-11.8	-30.8	2.8	9.7	26.7	-13.7	-8.2	3.1	6.4

자료 : 일본 재무성

주 : 해외직접투자액은 실행액 기준

- 중남미를 제외한 모든 지역·국가에 일본으로부터의 직접투자가 감소
- 최대 투자지역·국가인 유럽과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각각 20.3% 및 22.5 감소,
- 아시아 지역에 대한 직접투자는 7.9% 감소
- 對 한국 직접투자는 240억 엔으로 48.7% 감소

<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해외직접투자 (국제수지 기준, 억 엔,%) >

국가별	2015		2016						
	금액	증가율	1분기		2분기		7월		1-7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대세계	696,396	-11.8	196,248	-9.8	127,675	-35.0	54,862	5.8	378,785
아시아	141,593	19.0	22,851	-28.6	18,329	-19.8	5,725	-7.9	35,306
중 국	14,659	1.1	3,179	-16.8	3,230	1.6	964	-20.5	5,369
한 국	4,714	-20.6	721	-39.6	900	24.8	240	-48.7	1,377
북 미	237,283	-2.9	81,748	-8.0	28,029	-65.8	10,903	-22.2	101,981
미 국	230,435	-2.9	80,800	-7.8	26,166	-67.7	10,606	-22.5	99,846
중남미	22,758	49.4	3,574	-42.5	1,844	-48.4	15,133	1,264.6	5,821
유 럽	269,749	-30.4	83,122	-2.2	72,598	-12.7	22,009	-20.3	132,209
대양주	19,126	1.2	2,904	-8.9	3,190	9.8	519	-70.2	5,639
중 동	1,805	46.9	815	101.2	433	-46.9	58	-70.9	1,141
아프리카	6,843	7.3	1,225	-32.6	2,153	75.8	515	-46.4	2,935

자료 : 일본 재무성, * 전기비

□ (특이점)

- 2016년 들어서도 일본기업의 해외기업 M&A가 높은 수준을 유지
- 2017년 1-7월 기간 중 일본기업에 의한 해외기업 M&A는 5조 9,123억 엔
- 소프트뱅크의 영국 반도체설계기업 암홀딩스 인수(3조 3천억 엔), 고마즈사의 미국 광산기계업체 인수(3천억 엔)등 대형 M&A가 두드러짐
- 그 배경으로는 세계경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설비투자보다는 M&A가 단기간에 성장전략으로 연결시키기가 쉽다고 판단하는 기업들이 증가

III. 일본의 주요 정책

1. 일본의 새로운 금융완화 방식

□ 금융완화정책에 관한 총괄적 검증

- 일본은행은 9월 21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약 3년 반 계속되어온 대규모 금융완화정책에 대한 총괄적 검증을 실시
- 일본은행이 총괄적인 검증을 시작한 것은 대규모 금융완화를 시작한지가 3년 반이 경과했는데도 목표물가상승율 2%가 실현되지 않고 있기 때문임
- 이에 일본은 1)물가상승율 2%가 실현되지 않은 이유, 2)정책의 효과와 부작용 등을 분석, 금융정책의 틀 수정을 검토
- 일본은행은 총괄적 검증에서 2013년 4월부터 시작된 양적·질적 금융완화에 대해서 경제·물가를 호전시켜 더 이상 물가의 지속적인 하락이라는 의미에서의 디플레이션이 아니게 되었다고 평가
 - 또 유가하락과 소비세인상, 신흥국경제의 감축에 따른 물가상승률 저하와 예상물가상승률의 약세가 2%의 물가목표 달성을 저해했다고 분석
- 한편, 마이너스 금리의 도입을 포함한 완화정책의 강화로 수익률 커브가 내려간 것에 대해서는 대출 금리와 사채금리, CP금리의 하락에 기여했다고 평가
 - 게다가 수익률 커브의 과도한 저하, 평탄화는 넓은 의미에서의 금융기능의 지속성에 대한 불안감을 가져와 심리 등을 통하여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 새로운 금융완화 방식 도입

- 일본은행은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장단기금리를 유도목표로 하는 새로운 금융완화의 틀을 도입하기로 결정

- 도입이후 3년 반이 경과한 이차원완화정책의 틀을 이제까지의 양 중시에서 금리 중시로 방향 전환
-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유지하는 동시에 10년물국채금리를 0% 정도로 유도할 방침임
- 새로운 틀의 명칭은 「장단기금리조작(yield curve control)에 양적·질적 금융완화」, 장기금리의 유도방법으로는 이제까지도 실시해왔던 국채매입을 축으로 하는 매입액은 현행 80조엔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잔존년한에 구애받지 않고 폭넓게 국채를 매입
- 일본은행은 수익률을 지정하여 국채를 매입하는 새로운 국채매입에 착수하고, 나아가 최장 10년의 자금을 고정금리로 공급하는 새로운 금융조절수단도 도입

<일본은행의 주요 결정내용>

- 장단기 금리의 조작에 양적·질적 금융완화를 도입
- 장기금리가 0%정도로 추이하도록 국채를 매입
- 마이너스 금리는 연리 -0.1%로 고정
- ETF와 REIT의 매입은 유지
- 물가상승률이 안정적으로 2%를 초과할 때까지 완화계속

□ 물가 2% 실현을 위한 대담한 틀 변경

- 일본은행은 금융정책의 총괄적인 검증을 실시, 물가2% 실현을 위해서는 대담한 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
- 2%의 물가안정목표가 실현될 때까지 금융완화를 계속할 방침을 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마이너스 금리의 심층추적을 축으로 할 생각임
- 일본은행은 이 같은 정책을 2%의 물가안정목표가 실현되어 안정될 때까지 계속
- 이제까지는 2%에 달하기 전에 금융완화의 고삐를 늦추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전망도 있었으나, 2%를 초과할 때까지 완화를 계속할 것을 명확히 함

□ 향후 추가완화 수단

- 향후 추가완화수단으로는 (1)마이너스 금리정책의 강화, (2)장기금리조작목표의 인하, (3)자산매입의 확대, (4)자금공급량의 확대 기준을 가속 등을 제시. 마이너스 금리의 심층추적을 추가완화의 축으로 설정할 방침을 처음으로 명확히 함
- 일본은행이 금융정책의 틀을 바꾼 것은 시장에 유통되는 국채가 극단적으로 적어지는 가운데, 자금공급량의 확대를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계속해나가기가 어렵게 되고 있기 때문임
 - 이에 장기금리를 목표로 하여 자금공급량을 유연하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요하게 완화를 계속하도록 함
- 이제까지의 금융완화는 초장기 금리가 지나치게 하락하여 보험이나 연금의 운용이 어려워지는 부작용도 현저했음
 - 장기금리목표는 10년 물 국채금리가 마이너스권에 돌입하는 등 금리의 지나친 하락을 방지하여 금융기관에 배려한다는 의미도 있음

□ 평가

- 일본은행은 앞으로 정책의 방향성에 대하여 보다 지속적이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결론
 - 머니리베이스(자금공급량)를 장기적으로 늘림과 동시에 마이너스 금리와 국채매입을 적절히 조합시켜 수익률 곡선(yield curve)을 조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정책이 결정된 것임
- 그러나 금융완화의 틀을 바꾼 것에 대해 일본 언론은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음
 - 연합뉴스에 의하면, 요미우리신문은 정책전환이 양을 기준으로 한 종래의 방식이 한계에 거의 달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했으나 이번조치가 타당한 판단이라고 평가
 - 닛케이 신문은 한계를 맞고 있는 양에서 금리로 방향을 전환했다며 목표로 하는 물가 2% 상승의 길은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

IV. 한일 경제관계 분석

1. 대일 무역적자 3개월 연속 확대

□ (총 합)

- '16.8월 대일무역적자는 전월비 261백만 달러 증가한 2,153백만 달러
 - 전월에 이은 대일 수출의 감소가 대일무역적자 확대에 기여
- 8월의 대일 수출의존도는 전월의 5.1%에서 5.0%로 저하된 반면, 대일 수입의존도는 전월의 11.8%에서 11.9%로 상승
 - 수출과 수입을 합한 무역의 대일무역의존도도 전월의 8.1%에서 8.2%로 상승

< 2016년 8월 대일 수출입 및 무역수지 (백만달러,%) >

	2016.7월			2016.8월			2016.1-8월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대일 수출	2,081	-2.1	-3.2	2,005	7.2	-3.7	15,590	-10.0
대일 수입	3,973	0.7	2.0	4,158	20.2	4.7	30,172	-3.4
무역 수지	-1,892	72	147	-2,153	565	261	-14,582	656

자료 : 한국무역통계

□ (대일 수출)

- '16. 8월 대일 수출은 2,005백만 달러로 전월비 3.7% 감소
 - 동기간 중 일본의 수입은 증가했는데도 대일 수출의 감소폭은 총 수출의 감소폭보다도 큼

	대일 수출증가율(%)		총수출증가율(%)		일본의 수입증가율(%)	
	전년동기비	전기비	전년동기비	전기비	전년동기비	전기비
2016.7월	-2.1	-3.2	-10.3	-10.3	-24.7	-1.9
2016.8월	7.2	-3.7	2.6	-2.0	-17.3	2.3
2016.1-8월	-10.0	-	-8.8	-	-18.3	-

○ 전월과 비교하여, 10대 품목은 변함이 없는 가운데, 금속광물이 순위 9위에서 4위로 올라옴

- 대일 수출증가품목 중에서는 금속광물의 수출 증가폭이 57.5%로 가장 큼

- 대일 수출감소품목 중에서는 정밀화학제품의 수출 감소폭이 -22.0%로 가장 큼

< 2016년 8월 대일수출 10대 품목 (백만달러, %) >

순 위	품 목 명	2016.7월			2016.8월			2016.1-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총계	2081	-2.1	-3.2	2005	7.2	-3.7	15,590	-10.0
1	철강제품	269	11.6	11.6	273	15.2	1.5	1,973	-0.8
2	광물성연료	193	-15.2	12.9	213	-21.3	10.4	1,336	-43.2
3	전자부품	146	-30.7	-11.5	153	-17.9	4.8	1,199	-23.3
4	금속광물	87	4.0	-23.0	137	31.9	57.5	741	5.0
5	석유화학제품	115	-11.2	-0.9	130	48.1	13.0	823	-11.6
6	산업용전자제품	121	-1.1	-31.6	122	41.9	0.8	907	-45.5
7	정밀화학제품	146	19.6	6.6	114	-10.2	-22.0	945	-2.0
8	수송기계	117	-2.1	-4.9	94	16.8	-19.7	928	15.6
9	기계요소공구·금형	98	10.2	1.0	82	17.7	-16.3	728	15.5
10	농산물	84	0.4	0	72	-2.1	-14.3	610	-6.8

자료 : 한국무역협회

□ (대일 수입)

○ '16.8월 대일수입은 4,158백만 달러로 전월비 4.7% 증가

- 이는 동 기간 중 총수입의 증가율 0.7%를 상회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국내시장에서 일본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반영

	대일 수입증가율(%)		총수입증가율(%)	
	전년동기비	전기비	전년동기비	전기비
2016.7월	0.7	2.0	-13.6	-13.6
2016.8월	20.2	4.7	0.7	0.7
2016.1-8월	-3.4	-	-11.6	-

○ 대일수입은 전월과 비교하여 10대 품목 및 순위 모두 변함이 없음

- 대일 수입 증가품목 중에서는 수송기계의 수입 증가폭이 16.5%로 가장 큼
- 대일 수입 감소품목 중에서는 철강제품의 수입 감소폭이 -7.6%로 가장 큼

< 2016년 8월 대일 수입 10대 품목 (백만달러, %) >

순 위	품목명	2016.7월			2016.8월			2016.1-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총 계	3,973	0.7	2.0	4,158	20.2	4.7	30,172	-3.4
1	전자부품	484	-7.5	18.3	483	-4.1	-0.2	3,883	-4.1
2	철강제품	490	6.4	1.7	453	0.9	-7.6	3,450	-13.9
3	정밀기계	364	49.3	42.2	386	123.8	6.0	2,126	11.3
4	정밀화학제품	334	6.9	-7.0	376	26.0	12.6	2,710	6.7
5	석유화학제품	306	-28.5	-6.7	341	-5.3	11.4	2,536	-24.9
6	산업용전자제품	276	30.5	4.9	288	58.1	4.3	2,074	21.4
7	기초산업기계	233	-21.9	-12.4	260	16.2	11.6	1,998	-4.4
8	수송기계	206	-3.0	-4.2	240	51.2	16.5	1,642	0.5
9	플라스틱제품	198	0.4	-0.5	218	20.3	10.1	1,536	-2.2
10	산업기계	194	-0.2	0.0	182	38.3	-6.2	1,413	3.3

자료 : 한국무역협회

2. 일본인 직접투자 큰 폭 증가

□ (동 향) '16.2분기 일본의 對韓직접투자, 큰 폭 증가로 반전

○ '16.2분기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는 531백만 달러로 전기비 229.8% 증가

- 이는 동 기간 중 전체 외국인투자 증가율 48.1%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
- 전년동기비로는 22.4% 감소
- 건수로는 전기비 34.4% 증가

○ '16.상반기 중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는 692백만 달러로 전년동기비 28.9% 감소

<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 실적 (신고기준, 건, 백만달러, %) >

	2014		2015		2015.4분기		2016.1분기		2016.2분기		2106.1-2분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일본의 대한투자	352 (21.3)	2,488 (-7.5)	315 (-10.5)	1,665 (-33.1)	79 (17.9)	470 (111.7)	61 (-22.8)	161 (-65.8)	82 (34.4)	531 (229.8)	143 (-15.4)*	692 (-28.9)*
전체 외국인투자	2,463 (-5.6)	19,003 (30.6)	2,698 (9.5)	2,0909 (5.1)	774 (24.0)	7,639 (73.7)	667 (-13.8)	4,241 (-44.5)	760 (13.9)	6,279 (48.1)	1,427 (9.8)*	10,520 (18.6)*

주 : ()내는 전기비 증가율, *전년동기비 증가율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직접투자통계

□ (일본기업의 대한 직접투자 사례)

- 스미토모화학이 한국 대구공장에 200억 엔(약 2천150억 원)을 투자해 리튬이온배터리 발화를 막아주는 세퍼레이터(절연재) 생산능력을 2018년 중반까지 올 초의 4배인 연간 4억㎡로 늘리기로 함
 - 스미토모화학은 대구공장에 대한 투자규모를 이전 계획보다 확대해 절연재의 내열성을 높이는 수지(樹脂) 제조 설비 등을 차례로 늘릴 계획인데, 전기차 50만대분의 배터리 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임(2016.9.7. 이데일리, 닛케이))
- 도레이도 200억 엔을 투자해 한국에서 절연재를 70% 정도 증산할 방침임
 - 도레이는 파나소닉이나 LG화학에 절연재를 공급하고 있는데, 증산 후 도레이의 절연재 생산능력은 5억㎡ 이상으로 전망(2016.9.7. 이데일리, 닛케이))
- 일본 투자회사인 글로벌브레인이 모바일서비스 분야에 조만간 400억원 규모의 한국전용 펀드를 조성할 계획 (2016.8.23.한국경제)

□ (시사점)

- 최근의 엔고, 일본 해외투자기업들의 유턴사례, 일본기업들의 영업실적 개선에 따른 투자여력 확대 등을 對韓 투자 유도에 최대한 활용하고, 한일간 정치적 교착상태 완화 등을 통한 차별화된 對韓 투자 유치 노력이 필요

V. 참고 자료

1. 주요기관 연구보고서(2016.7월~2016.8월)

□ 국내 기관

- 『최근 일본 여행수지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16년 9월23일
<http://www.bok.or.kr/contents/total/ko/boardNewRptView.action?boardBean.brdid=130095&boardBean.menuid=528&boardBean.rnum=2&menuNaviId=500&boardBean.cPage=1&boardBean.categorycd=0>
- 『최근 일본경제의 쟁점과 전망』 현대경제연구원, 2016년 9월19일
<http://hri.co.kr/board/ReportView.asp?numIdx=25825&firstDepth=1&secondDepth=6&thirdDepth=>
- 『일본의 인바운드 수출 확대 전략과 시사점』 국제무역연구원, 2016년 9월9일
http://iit.kita.net/newtri2/report/iitandtrade_view.jsp?pageNum=1&nGubun=10&s_con=&s_text=&sStartDt=&sEndDt=&sOrder=&sClassification=&actionName=&sNo=1554
- 『일본 닛산, 대중차에도 자동운전 기능 탑재』 산업연구원, 2016년 9월8일
http://www.kiet.re.kr/kiet_web/?sub_num=12
- 『일본기업의 실적 악화, 하반기에도 반전 어렵다』 LG경제연구원, 2016년 9월6일
<http://www.lgeri.com/economy/overseas/article.asp?grouping=01010200&seq=723>
- 『일본의 소비재 글로벌화 전략과 시사점』 KOTRA, 2016년 9월2일
<http://news.kotra.or.kr/user/reports/kotranews/20/usrReportsView.do?reportsIdx=6592>

□ 일본 기관

- 『고령화 사회의 니즈와 기업의 대응동향』 재무종합정책연구소, 2016년 9월22일
http://www.mof.go.jp/pri/research/conference/fy2016/inv_01_05.pdf
- 『수출·해외전개의 가속화를 위한 농업의 경쟁력강화에 관한 제언』 일본경제단체연합회, 2016년 9월21일
http://www.keidanren.or.jp/policy/2016/077_honbun.pdf
- 『포스트 2020년 일본사회와 성장산업에 관한 앙케이트 조사결과』 야노경제연구소, 2016년 9월21일
<http://www.yano.co.jp/press/pdf/1586.pdf>
- 『에너지절약 기술전략(2016)』 경제산업성, 2016년 9월17일
<http://www.meti.go.jp/press/2016/09/20160916002/20160916002.html>
-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한 횡단적 제도연구회 보고서』 경제산업성, 2016년 9월16일
<http://www.meti.go.jp/press/2016/09/20160915001/20160915001.html>
- 『산업의 중장기적인 구조변화의 방향성』 경제산업성, 2016년 9월13일
<http://www.meti.go.jp/press/2016/09/20160915001/20160915001.html>
- 『TPP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각종 분석』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2016년 9월9일
http://dl.ndl.go.jp/view/download/digidepo_10192789_po_0920.pdf?contentNo=1
- 『제 4차산업 혁명과 중소기업의 가능성』 남도경제연구소, 2016년 9월7일
<http://www.nantoeri.or.jp/research/201609.html>
- 『IoT시대에 ICT산업의 구조분석과 ICT에 의한 경제성장 검증』 일본총무청, 2016년 9월7일
http://www.soumu.go.jp/johotsusintokei/linkdata/h28_01_houkoku.pdf
- 『고부가가치화가 가져오는 수출구조의 변화』 다이와종합연구소, 2016년 9월1일
http://www.dir.co.jp/research/report/japan/mlothers/20160831_011210.pdf
-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성향에 관한 조사보고서』 경제산업성, 2016년 8월30일
http://www.meti.go.jp/meti_lib/report/2016fy/000583.pdf

2. 주요 경제 일정

<9월 실적>

일자	주요 내용
7	- 日ASEAN 정상회의, ASEAN+ 3(한중일) 정상회의, 日메콩 정상회의(베트남)
8	- 동아시아정상회의(베트남)
12	- 제1회 규제개혁추진회의 및 제1회 미래투자회의 개최(총리실)
14	- 중일 고위사무관급 해양협약(히로시마, 15일까지)
15	- 일본 민진당 대표선거 (렌호 대표 당선)
20	- 일본은행 정책위원회·금융정책결정회의(21일까지) * 구로다 총재 취임 이후의 금융정책에 관한 검증 보고서 발표 * 새로운 금융완화강화 정책인 '장단(長短)금리조작을 불인 양적·질적 금융완화' 발표
21	- 아베 총리, UN총회 연설(뉴욕) - 8월 무역통계 발표(재무성)
22	- 아베 총리, 쿠바 방문(24일까지) - 'Tourism EXPO Japan2016' 개최(도쿄, 25일까지)
23	- G7 교통장관회의(나가노현, 25일까지)
26	- 임시국회 소집(11/30까지), 아베 총리 연설 - 일본 국산 제트여객기 MRJ(미쓰비시항공기) 미국에서 실험비행
27	- 제1회 일하는 방식 개혁실현회의(총리실)

<10월 예정>

일자	주요 내용
상순	- 노벨상 발표
27	- 한일산업기술페어2016(롯데호텔서울)
28	- 청년인재 일본기업 취업 상담회(롯데호텔서울)
하순	- 日필리핀 정상회담(도쿄)